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 연구

한 나 리·박 주 희*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인류 진화 체계가 기술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사회적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패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미래 인간상의 창조적 가치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인류 진화 체계에 대해 새롭게 조망되고 있는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을 현대 패션쇼 전반에 나타난 콘셉트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이 인류의 진화를 자연적인 것에서 인공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 향상의 이해 방식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휴먼이 나타난 현대 패션쇼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컬렉션 쇼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정된 사례의 구성 요소를 분석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패션 컬렉션 중, 샤넬의 2017년 S/S RTW 파리 컬렉션, 구찌의 2018년 F/W RTW 밀라노 컬렉션, 이리스 반 헤르펜의 2014년 F/W RTW 파리 컬렉션 패션쇼는 포스트휴먼의 개념이 잘 드러나는 사례로서 포스트휴먼의 내적 표현을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과 융합 기술이 혁신을 주도하는 현시대에 과거의 패션 규칙을 탈피한 포스트휴먼의 표현 양상은 본성에서 이탈되는 정체성을 지향하고 무한한 상상을 일으키며 현대 패션의 실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가 패션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포스트휴먼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패션쇼 연출 및 디자인 개발의 표현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패션쇼, 포스트휴먼, 기술, 인류

*교신저자: 박주희, ju-hee@kookmin.ac.kr

접수일: 2020년 5월 7일, 수정논문접수일: 2020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20년 7월 31일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기술 발전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인간의 신체적 향상을 위한 인류의 움직임은 고대부터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영향을 끼쳐왔으며, 20세기 이후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첨단 기술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신체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개선된 신체를 추구하며, 나아가 향상된 신체를 실현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Back, 2018). 로봇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 정보통신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서 인간과의 융합이 선행되면서, 포스트휴먼(Posthuman) 시대의 변화와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n.d.).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자연성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한계성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인류사의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대 패션계에서도 개념적으로 차용되고 있는 소재로서 포스트휴먼의 윤리적 함의와 양가적 표현을 통해 인류 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망하고 있다(Korea Post-Human Research Institute & The Korea Association for Posthuman Society, 2016).

본 연구는 인류가 기술 흐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현시점의 사회적 쟁점을 직접적이고 과감하게 표출하는 현대 패션을 통해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패션 연구로는 Back(2018)의 과학 기술이 반영된 패션 특성에 대한 연구와 Choi(2011)의 SF 영화에 나타난 가상 패션에 대한 분석이 있다. 신체와 관련된 포스트휴먼 연구로는 Kim(2017)의 캐릭터 연구, Moon(2006)의 사이보그(cyborg) 이미지 연구, Nam(2016)의 분장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패션의 의복이나 신체의 몸 이미지에 관한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매 시즌 활발히 발표되는 패션 컬렉션의 쇼 구성적 측면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사료된다. 패션쇼는 컬렉션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자 매개체로서 독창적인 무대 장치와 퍼포먼스 형식으로 구성되고, 디자이너의 창의적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Kim, 2018). 패션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종합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포스트휴먼의 분석 대상을 패션쇼의 종합적 연출 범위로 확장하여 실질적 사례를 통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인류 진화 체계가 기술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사회적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패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미래 인간상의 창조적 가치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인류 진화 체계에 대해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을 현대 패션쇼 전반에 나타난 콘셉트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이 인류의 진화를 자연적 속성에서 인공적 속성으로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 향상의 이해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한다. 인간 향상에 대한 고대의 상징적 표현과 중세의 기계 기술로 고안된 인간형 로봇 그리고 현재의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는 의학 기술 및 혁신적인 연구로 시도되고 있는 미래 유전자 기술까지, 기술로 진화되는 포스트휴먼의 미래 인간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휴먼이 나타난 현대 패션쇼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컬렉션 쇼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정된 패션쇼 사

례의 구성 요소를 분석한다.

패션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ang(2002)은 패션쇼의 구성 요소를 장소, 무대 장치, 연출 기법, 음향, 모델로 나누고, 무대 장치를 배경, 조명, 의복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Chang(2012)은 의복, 공간, 매체, 관객으로 구분하였고, Myung(1999)은 주제, 무대, 조명, 효과, 음향, 장소, 매체로 나누었으며, Yun and Lee(2001)는 무대, 조명, 영상, 효과, 모델, 관객, 음향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패션쇼의 구성 요소를 주제가 표현된 무대, 관객이 동요되는 전체 공간, 조명 및 음향의 효과, 소품이나 모델의 퍼포먼스, 패션쇼의 주체인 의복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을 도출한다. 연구 방법은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선행 논문 및 정기 간행물, 인터넷 자료들을 고찰하고, 잡지, 패션 정보 사이트 및 브랜드의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사진과 기사를 수집하여 진행한다. 연구 범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표된 패션 컬렉션 중, 사이보그, 로봇, 유전자 편집, 인간 시장 등의 키워드를 통해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주제가 명확히 언급된 기사나 매체를 근거로 선정한다(“Cyborgs and Chanel’s”, 2016; Furniss, 2015; Valenti, 2018). 샤넬(Chanel)의 2017년 S/S RTW 파리 컬렉션, 구찌(Gucci)의 2018년 F/W RTW 밀라노 컬렉션, 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의 2014년 F/W RTW 파리 컬렉션의 패션쇼는 포스트휴먼의 개념이 잘 드러나는 사례로서, 이를 중심으로 인류 진화 체계에 대해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포스트휴먼의 개념

포스트휴먼은 인간을 뜻하는 ‘휴먼(human)’에

‘이후’를 뜻하는 접두사 ‘포스트(post)’가 붙어 ‘인간 이후의 인간’을 뜻한다. 기술의 물질적인 포용을 통해 신체 능력이 증진된 미래 인류를 의미하며 미래학, 예술, 철학 분야에서 자연적인 인간에 반하는 인공적으로 진화된 신체를 가진 인간을 가리킨다(Cho, 2006). 포스트휴먼의 용어는 1966년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말과 사물(Les Mots et les Choses)』에서 인간 종언을 선언한 것에서 유래된다. 포스트휴먼이 학술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간된 캐서린 헤일즈(Katherine Hayles), 캐리 울프(Cary Wolfe), 닐 배드밍턴(Neil Badmington), 엘레인 그레엄(Elaine Graham)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Nam, 2016).

포스트휴먼의 신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는 최근까지 주요한 시대적 이슈로서 기능적 측면과 미학적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학자 호세 코르데이(José Cordeiro)는 포스트휴먼을 새로운 유전적 설계, 나노기술, 정신약리학, 반노쇠화치료법, 신경의사소통, 정보관리기법, 기억강화약물, 웨어러블컴퓨터 등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이 통합적 인공지능으로 강화된 새로운 신체 개념으로서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하였다(Park & Cordeiro, 2006). 반면, 미술관 전시기획자 제프리 다이치(Jeffrey Deitch)는 미학적 측면에서 대중문화의 이미지, 포토샵과 성형수술, 컴퓨터와 생명공학의 융합 등 인간의 외형이 가상현실과 생명공학이 동반됨으로써 새롭게 설계되는 신체 개념으로 포스트휴먼을 연결 지었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은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신체 한계를 넘어 이상화된 혹은 욕망하는 신체로 진보된 미래 인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Choi, 2011).

2. 포스트휴먼의 근원

현대 과학의 발전을 통한 부분적인 성과들은 결과적으로 인류의 향상된 인간 창조에 대한 욕구

를 시도하게 하였으며, 인류는 발전되는 기술을 통해 보완과 개선을 넘어 신체적 능력 이상의 존재를 실현하고자 한다. 인류는 고대부터 신성함과 초인적 능력을 소유한 정령들을 숭배해 왔는데, 이러한 초월한 존재에 대한 믿음은 고유한 신체에 대한 회의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인간의 본능적 열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 신화에는 엄청난 힘과 불사의 몸을 가진 청동인간 탈로스(Talos)가 있으며, 유대인 전통 신화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거대한 진흙인간 골렘(Golem)이 있다. 이러한 고대 기이한 설화 속 존재들은 중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인간을 모사한 동력을 갖춘 기계적 창조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Cho, 2006). 17세기 과학의 실용주의적 영향으로 신체 구조는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유기체로 설계되고, 중세 해부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부 생명 기능을 모방한 기계인형 오토마톤(automaton)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유럽의 독자적 예술로 계승되면서 기계적 인간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Cipolla, 2013). 근대 이후 인간을 닮은 기계인형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대리자로서 지치지 않는 동력과 강한 힘, 자율적 기능을 갖추며 로봇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Lim, 2013).

로봇이 인류의 삶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신체적 향상에 대한 기대는 로봇과 융합되는 기술로 이상화되었다. 소설가 메리 셸리(Mary Shelly)의 1818년 괴기 소설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에서는 개조된 몸으로 복합된 인간성을 가진 거대한 인조인간 사이보그를 등장시키며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한 많은 영감을 주었다(Cho, 2006). 사상가 도나 해러웨이(Donna Jaraway)는 1991년에 저술한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성(Simians, Cyborgs and Women)』에서 기계와 결합한 인간, 사이보그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이 책에 그의 1985년 논문 『사이보그 선언문(A Cyborg Manifest)』이 재수록되

면서 사이보그는 공상 과학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적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가 이론적, 철학적 논쟁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포스트휴먼은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모든 장애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신체와 정신이 생물학적으로 지능화되는 진화론적 발전 추이를 보이며서 미래지향적인 기대로 해석되고 있다(Famell, 1999).

3. 포스트휴먼의 기술

오늘날 인간 향상의 기술력은 최첨단 소재와 기능의 인공 장기, 의수, 의족 등으로 기계와 신체가 결합하고, 인공지능, 전자두뇌, 로봇과 정신의 범위까지 융합이 가능해지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이보그 신체는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포스트휴먼의 가장 근접한 의미로 다뤄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첨단 의수, 의족은 신체의 부재 또는 장애를 보완하는 도구에서 인공지능화된 생체 기능 대행 로봇으로 개발되며 거부감 없이 신체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첨단 의수 기업 오토보크(Ottobock)의 비바이오닉(BeBionic)은 정밀한 손가락 움직임과 손동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팔의 힘을 넘어 최대 45kg의 물건을 들 수 있고(“Bionic Hand”, n.d.), 스포츠 의족 기업 오서(Ossur)의 육상 선수용 플렉스 풋 치타(Flex Foot Cheetah)는 장애 보조 기구의 역할을 뛰어넘는 기능으로 선수의 기구 착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Lewis, 2011).

인공지능 시장의 영향력은 세계 글로벌 IT 기업들의 유전자 분석, 수명 연장, 두뇌 반도체에 대한 연구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구글(Google)은 DNA를 분석하여 인간의 신체 변화를 4년간 추적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아마존(Amazon), 오라클(Oracle), 페이팔(PayPal)은 노화 억제제를 통한 수명 연장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Woods, 2019), 벤

처 기업 뉴럴링크(Neuralink)는 인간의 두뇌에 인공지능 칩을 삽입해 컴퓨터와 융합된 인간의 초지능을 실현하는 단계에 있다(Knapp, 2019). 또한 유전자 분석 기술은 이미 현대 의학에서 난임, 불임의 치료와 보다 좋은 형질의 유전자를 선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공학의 발전은 유전적 결함을 밝혀 질병을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특성을 유기적으로 생성하고 조작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이어지면서, 인류 진화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부각되고 있다(Knoepfler, 2016). 2013년 개발된 유씨 버클리(UC Berkeley) 연구진의 유전자 편집 도구 크리스퍼 캐스나인(Crispr Cas9)은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어 유전자를 교정하고 설계하는 기술로서 이는 곧 인류가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 기술을 통해 새로운 유형으로 변종하고, 신체 특징을 원하는 대로 개조 또는 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Kim, 2005). 이러한 과학의 지속적인 성공이 인류 진화 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근본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Braidotti, 2015).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2015년 『사피엔스(Sapiens)』에서 인류는 생물학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와의 결합을 선택할 것이라고 서술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였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2017년 리버풀 미래 지능 센터(Leverhulme Centre for the Future of Intelligence) 연설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류 정체성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Cellan-Jones, 2014).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포스트휴먼은 인간 향상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기술이 인간의 종을 변이시키는 미래 인류의 재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류의 기술은 인류 진화 체계에 영향을 주는 연구와 개발에 있어서 혁신의 촉진과 규제 사이의 책임 있는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Lee et al., 2004).

III.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사례 및 분석

1. 2019년 동향

2019년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은 컴퓨터와 융합된 기계적 신체 또는 가상적 신체가 무대 장치나 배경 효과를 통해 강렬하게 표현되었다. <Figure 1>의 디올 오므(Dior Homme) 2019년 Pre-Fall 패션쇼는 12m 높이의 거대한 여성 로봇을 원형 무대 중앙에 세우고, 그 주위로 사이보그 소품을 착용한 모델들을 등장시켰다(Doig, 2018). <Figure 2>의 발렌시아가(Balenciaga) 2019년 S/S 패션쇼는 360도 LED 화면으로 된 터널을 사용하여 영화 『매트릭스(Matrix)』의 가상 현실을 모티브로 하였고(Silbert, 2019), <Figure 3>의 프라다(Prada) 2019년 F/W 패션쇼는 프랑켄슈타인을 주제로 무대 바닥에 대형 전구를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과학 실험의 이미지를 차용하였다(Menkes, 2019). 소품이나 모델의 연출 기법을 통해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은 마린 세르(Marine Serre) 2019년 F/W 패션쇼의 눈 밑 라이팅 스트랩을 장착한 모델(Figure 4), 쉐더 저우(Xander Zhou) 2019년 S/S 패션쇼의 임신한 남성 모델(Figure 5) 그리고 지씨디에스(GCDS) 2019년 S/S 패션쇼의 가슴이 세 개 달린 여성 모델(Figure 6) 등으로 표현되어 인간이 사이보그화되거나 변형 또는 기형화되어 기존 생물학적 신체 구조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관념을 무시하고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종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톰 브라운(Thom Browne) 2019년 F/W 패션쇼는 얼굴 전체가 투명 비닐로 진공 포장된 모델들이 등장하여 계능 시대의 인간 시장화를 보여주고 있으며(Figure 7), 릭 오언스(Rick Owens) 2019년 F/W 패션쇼에서는 외계 생물체를 연상시키는 모델들의 분장을 통해 미래의 기후와 생태에 맞춰 진화된



Figure 1. 디올 움브 2019 Pre-Fall.
From Dogi. (2018).
<http://www.telegraph.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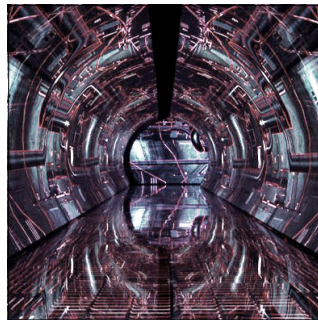


Figure 2. 발렌시아가 2019 S/S.
From Balenciaga. (n.d.).
<http://www.lamodeenimag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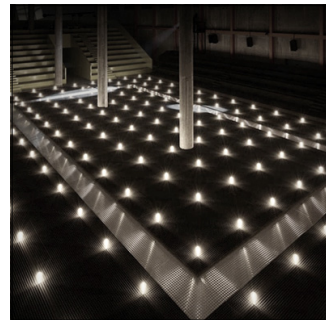


Figure 3. 프라다 2019 F/W.
From FW 2019 Womenswear.(n.d.).
<http://www.prad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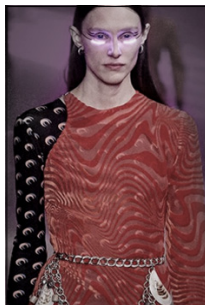


Figure 4. 마린 세르
2019 F/W.
From Fall 2019
Ready-To-Wear Marine
Serre. (n.d.).
<http://www.vogue.com>



Figure 5. 샌더 저우
2019 S/S.
From Xander Zhou
Spring/Summer 2019
Menswear Collection. (n.d.).
<http://www.vogue.com>



Figure 6. 지씨디에스
2019 S/S.
From Spring 2019
Ready-to-Wear GCDS.
(n.d.).
<http://www.vogue.com>



Figure 7. 톰 브라운
2019 F/W.
From Fall 2019 Menswear
Thom Browne. (n.d.).
<http://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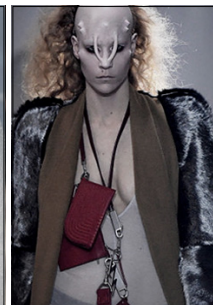


Figure 8. 릭 오언스
2019 F/W.
From Fall 2019
Ready-To-Wear Rick
Owens. (n.d.).
<http://www.vogue.com>

인간의 신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Figure 8). 2019년 패션 동향은 신체의 부분 생성과 변형으로 모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표현되면서 미래 인간상에 대한 기묘한 심상을 자아내고 있다. 조형적 설치물, 첨단 영상 기법, 기계 장치 등의 연출이나 인간과 로봇의 결합, 변형된 신체를 표현함으로써, 인류가 기술과 환경에 따라 진화되는 포스트휴먼의 미래 인류상을 표현하고 있다.

2. 패션쇼 사례

샤넬의 2017년 S/S 컬렉션은 ‘친숙한 테크놀로지(Intimate Technology)’라는 주제로 인간과 기술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샤넬 패션쇼는 방대한 양의 컴퓨터 자료를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를 압도적인 규모로 연출하여 인공지능과 융합되는 포스트휴먼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다. 무대는 까다로운 온도도와 습도, 전력, 보안 등에 영향을 받는 서버실의 모습으로 수많은 케이블과 하드웨어가 서랍형 캐비닛에 빼곡히 자리 잡고 있다(Figure 9). 메탈릭하고 컬러풀한 코드, 밝은 조명과 기계 소음의 경쾌한 음향 효과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종속된 미래 사회 모습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Figure 10). 객석의 의자는 서버실 환풍구를 연상시키며 의자에 착석한 관객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 공간 안에 수용된다(Figure 11).

쇼는 로봇 형태의 헬멧, 장갑, 부츠로 장착한 두 명의 사이보그 모델이 공상과학 영화처럼 수많은



Figure 9. 샤넬 패션쇼 무대.
From Saillant. (2019).
<http://www.chanel.com>



Figure 10. 샤넬 패션쇼 효과.
From Bianca London for Mailonline. (2016).
<http://www.dailymail.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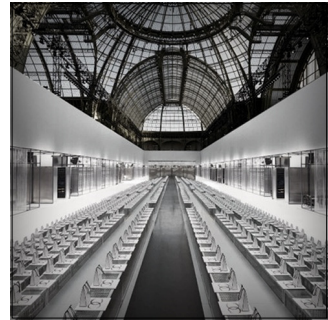


Figure 11. 샤넬 패션쇼 공간.
From Bauknecht. (2017).
<http://www.sandrascloset.com>



Figure 12. 샤넬 룩 1.
From Chanel Spring 2017
Ready-To-Wear. (n.d.).
<http://www.vogue.com>



Figure 13. 샤넬 룩 2.
From Chanel Spring 2017
Ready-To-Wear. (n.d.).
<http://www.vogue.com>



Figure 14. 샤넬 룩 3.
From Chanel Spring 2017
Ready-To-Wear. (n.d.).
<http://www.vogue.com>



Figure 15. 샤넬 룩 4.
From Chanel Spring 2017
Ready-To-Wear. (n.d.).
<http://www.vogue.com>



Figure 16. 샤넬 룩 5.
From Chanel Spring 2017
Ready-To-Wear. (n.d.).
<http://www.vogue.com>

전선들이 꽃혀있는 서버 시스템 사이에서 나란히 등장하는 퍼포먼스로 시작된다(Figure 12). 모델은 인간을 닮은 로봇인지, 로봇을 닮은 사이보그 인간인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생명체로서 의복 이외의 모든 신체 부분을 기계로 덮고 있다(Bianca London for Mailonline, 2016). 샤넬의 대표적인 트위드 재킷은 전자회로, 케이블 등의 전선들이 얹히고 꼬인 듯한 질감과 피복처럼 감싸진 단 처리 기법(Figure 13), 다채로운 광채의 픽셀 형태의 조직(Figure 14), 가벼운 직물로 개발된 형형색색 모티브(Figure 15), 터치로 인식하는 여밈 장치(Figure 16)를 적용하여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현대 인간상의 전환을 표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컴퓨터 코드 명령어가 표면에 나열된 선글라스, 로봇 형태의 클러치, 표면에 텍스트가 움직이는 LED 백(bag)

등과 함께 컴퓨터화 되어가는 인류와 로봇의 공생을 상기시키고 있다(Brady, 2016). 샤넬 패션쇼는 집약적 처리 기능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인공지능화된 슈퍼컴퓨터가 인간 사회의 핵심이자 중심으로 자리하고, 인류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인지시키며, 샤넬의 기술력을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미래 인간상과 함께 알리고 있다.

미래 인류에 대한 ‘경고(Warning)’를 주제로 한 구찌의 2018년 F/W 컬렉션은 철학자 미셸 푸코의 담론과 사상이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에서 영감을 얻고, 사이보그 육체를 지향하는 에세이에서 착안하여 상상을 초월한 과격적인 무대로 패션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Donvan, 2018). 쇼의 무대는 미국 미네소타주(Minnesota)에 있는 세계 최대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Mayo Clinic)의 수술실

실내를 그대로 재현하고, 새로운 양식으로 정체성을 창출하는 패션 디자이너의 공간을 투명함으로써 개조와 재창조로 만들어지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초자연과 하이브리드를 서술하고 있다(Figure 17). 무대 중앙에는 녹색 시트가 덮인 수술대가 놓여있으며 수술용 LED 조명이 밝게 켜져 있다. 수술실의 기계음들이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 사라지고 이후 제의식이 행해지는 듯한 음향 효과가 창조적이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Figure 18). 객석은 병원의 대기실 의자로 채워지고 관객들을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로 자연스럽게 이입시켜 포스트휴먼의 주제에 수용되도록 공간으로 끌어들인다(Figure 19).

생기 없는 모습의 모델들은 자신의 무표정과 눈빛을 그대로 복제한 얼굴 모형을 한쪽 팔에 끼운

채 괴이한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시작한다(Figure 20). 모델들은 이마와 손등에 제3의 눈이 있거나 머리에 뿔이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의 생명체로 표현되었다(Figure 21). 의복은 나라, 종교, 계절, 성별 등 시대와 문화를 제한 없이 뒤섞어 놓아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인간상을 보이고 있다(Figure 22). 터번 형태로 제작된 모자와(Figure 23) 블랙 마스크는(Figure 24) 문화 변질과 인종차별의 논란거리가 되면서 패션계의 무분별한 차용에 비판과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하였다(Mower, 2018). 난해하고 그로테스크한 구찌 패션쇼의 구성 요소들은 포스트휴먼을 인간의 기술로 인해 재창조된 돌연변이적 생명체를 표현함과 동시에 통제되지 않는 미래 사회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리스 반 헤르펜의 2014년 F/W 컬렉션은 ‘생



Figure 17. 구찌 패션쇼 무대.
From Fisher. (2018).
www.harpersbazaar.com



Figure 18. 구찌 패션쇼 효과.
From Fisher. (2018).
www.harpersbazaar.com



Figure 19. 구찌 패션쇼 공간.
From Fisher. (2018).
www.harpersbazaar.com



Figure 20. 구찌 룩 1.
From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
<http://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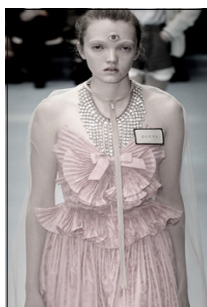


Figure 21. 구찌 룩 2.
From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
<http://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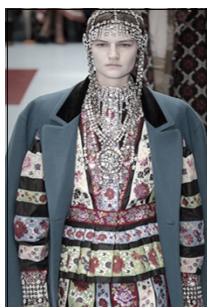


Figure 22. 구찌 룩 3.
From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
<http://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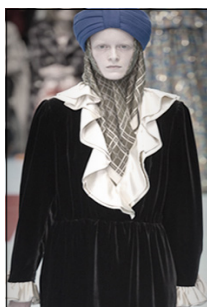


Figure 23. 구찌 룩 4.
From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
<http://www.vogue.com>



Figure 24. 구찌 룩 5.
From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
<http://www.vogue.com>

물학적 약탈(Biopiracy)'을 주제로 포스트휴먼의 외형적 속성과 더불어 근본적인 생명 원리를 다루고 있으며 제조되고 만들어지는 인간 생산실로 무대를 설치하였다. 거대한 사각형의 투명 PVC 두 층 사이에 진공 상태로 압축된 모델의 퍼포먼스는 잠든 상태로 영유하듯 떠 있는 태아의 모습을 연상시킨다(Howarth, 2014). 제품으로 포장된 인간의 모습은 미래의 생명적 존재로 표현되었다(Figure 25). 느리고 거친 숨소리와 심박 소리를 강한 진동의 음향 효과로 설정하고(Figure 26), 노출 콘크리트 벽면과 기둥, 빈틈없이 붙어 앉은 촘촘한 객석 공간을 연출하여 차갑고 삭막한 미래 인류의 창조와 생산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Figure 27).

의복은 3D 프린팅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섬유재의 제약을 넘어 낮설고 변형된 생물체적 질감을 구현하여 미래 인류의 모습을 재구성하였다. 패션테크로 개발된 특수 가공 직물은 기술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생명체를 연상시키며 인류 표현에 접목시켰다. 찢어진 직물 사이로 반짝이는 합성 오パール(Figure 28), 후광처럼 발산되는 불투명 크리스털(Figure 29), 원초적 느낌의 인조 모피(Figure 30), 물 광택의 매끄럽고 유연한 실크와 나일론의 이중 직물(Figure 31), 방사형으로 나열된 수백 개의 유리 볼(Figure 32) 등의 소재와 저채도의 컬러를 사용하여 자연적 모티브의 유기체를 차분하고 냉소적으로 표현하였다(Biopiracy, n.d.). 이리스 반 헤르펜의 패션쇼는 인류가 초래한 기술적 진화 체계가 인간을 생성하고 상업화되는 인체 시장을 비판하



Figure 25.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 무대.
From Biopiracy. (n.d.).
<http://www.vogue.com>



Figure 26.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 효과.
From Biopiracy. (n.d.).
<http://www.vogue.com>



Figure 27.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 공간.
From Biopiracy. (n.d.).
<http://www.vogue.com>



Figure 28. 이리스 반 헤르펜 룩 1.
From Fall 2014
Ready-To-Wear Iris Van Herpen. (n.d.).
<http://www.vogue.com>



Figure 29. 이리스 반 헤르펜 룩 2.
From Fall 2014
Ready-To-Wear Iris Van Herpen. (n.d.).
<http://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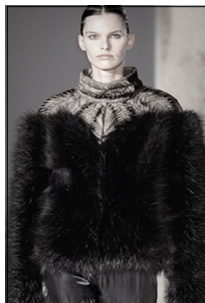


Figure 30. 이리스 반 헤르펜 룩 3.
From Fall 2014
Ready-To-Wear Iris Van Herpen. (n.d.).
<http://www.vogue.com>



Figure 31. 이리스 반 헤르펜 룩 4.
From Fall 2014
Ready-To-Wear Iris Van Herpen. (n.d.).
<http://www.vogue.com>



Figure 32. 이리스 반 헤르펜 룩 5.
From Fall 2014
Ready-To-Wear Iris Van Herpen. (n.d.).
<http://www.vogue.com>

며 포스트휴먼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 종합적 분석

샤넬 2017년 S/S, 구찌 2018년 F/W, 이리스 반 헤르펜 2014년 F/W 컬렉션의 패션쇼는 전형적인 프레젠테이션 개념을 확장하여 실험적이고 다각적인 무대, 효과, 공간, 퍼포먼스, 의복 등 패션쇼의 구성 요소의 총체적인 연출을 통해 하나의 공연 예술 형태로서 포스트휴먼이 표현되었다(Table 1).

샤넬 패션쇼는 과학에 대한 낙관으로 가득했던 구시대의 미래 공상 세계를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서버실을 무대로 재현하였다. 무대에 빼곡히 진열된 하드웨어 사이로 모델의 동선을 이끌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패션 소품과 의복 설계로 컴퓨터와 상호 연결된 신인류를 표현하였다. 샤넬 패션쇼는 기계를 모방한 신체의 사이보그를 등장시켜 기계화된 인간, 인간화된 기계에 대한 포스트휴먼 시대로의 전환을 조명하였다. 구찌 패션쇼는 수술실을 재현한 무대 연출로서 인간을 실험하고 개조하여 낯설고도 익숙한 혼란스러운 포스트휴먼 사회 감성을 연출하였다. 무대를 비롯한 전체적인 구성은 고전적인 모티브와 미래 기술이 배치되어 모순되고 이질적인 대립 양상을 띠며, 모델의 특수 분장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이중 결합을 암시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구찌 패션쇼는 다양한 문화의 전통과 여러 시대의 의복 양식을 시공간적으로 혼합하여 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미래 인류를 창의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는 출산의 근본 원리에 반하는 유전자 기술로 인해 인간의 생명이 수확되거나 또는 폐기될 수 있는 인간 상업화 이슈를 강렬한 시각적 무대 장치로 표현하였다. 모델들은 포장된 태아의 모습으로 연출되었고, 의복은 3D 프린팅과 패션테크를 적용하여 특수 가공된 유기적인 신소재를 사용하여 인류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개체임을 나타내었다.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는 창조적 생산 기술에 대해 인간의 복수 생산과 고유성 훼손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 시장화의 위험성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의 탄생이 필연적인 운명에서 기술적으로 창조되는 것으로 변모하였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신체 향상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의도적으로 진화되는 미래 인류상이 포스트휴먼의 표현 특성으로 분석된다.

IV.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

샤넬 2017년 S/S, 구찌 2018년 F/W, 이리스 반 헤르펜 2014년 F/W 컬렉션의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표현 특성은 로봇공학에서 유전공학에 이르는 기술 체계와 그 기술로 인간 형질의 우월을 추구하는 신체 향상, 이로써 드러나는 미래 인

Table 1. 포스트휴먼이 표현된 패션쇼 구성 요소.

컬렉션	주제	패션쇼의 구성 요소				
		무대	효과	공간	퍼포먼스	의복
샤넬 2017년 S/S	진숙한 테크놀로지	데이터 센터 서버실	경쾌한 음향 기계 소음	서버 환풍구 공간	사이보그	LED·첨단 장치
구찌 2018년 F/W	경고	병원 수술실	재의적 음향 수술 기계음	실내 대기실 공간	둘연변이	시대·문화 양식
이리스 반 헤르펜 2014년 F/W	생물학적 약탈	인간 생산실	거친 숨소리 심박 진동음	노출 빼곡한 공간	인간 창조	3D 프린팅 신소재

간상의 외적 형상으로 구분하여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포스트휴먼의 기술적 진화는 샤넬 패션쇼에서 인공물이 신체에 이식되는 로봇공학의 사이보그 기술로 실현되고, 구찌 패션쇼에서는 유전공학의 개입을 통해 신체가 변형되는 기술로 나타나며,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에서는 생명공학을 통한 유전자 편집으로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는 기술로 표현된다. 포스트휴먼의 기술 체계 도입은 자연성을 침범하고 본질을 거부하여 인간이 스스로가 부여하는 인위적인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은 자연물과 인공물, 남성성과 여성성, 평범함과 특이함, 정신과 물질을 한데 모으고 재구성하여 역설적이지 미정된 생명체로서 종의 구분 없이 개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성 경계의 이분법적 해체의 미적 반향이 화두였던 패션계는 기술 공학으로 미래 신인류를 대체할 생명체의 출현을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술 체계에 의한 인공적 방식을 수용하고, 이질 속성을 포용하여 종의 구분과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이 모호성으로 도출된다.

둘째, 포스트휴먼의 신체적 우월성은 샤넬 패션쇼에서 컴퓨터와 인간이 상호적으로 연결된 결합형 신체를 통해 표현되고, 구찌 패션쇼에서는 창의적으로 실험된 개조형 신체로서 나타나며,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에서는 생명의 생산화로 인한 맞춤형 신체로 구현된다. 포스트휴먼의 신체 향상의 욕구는 인간의 고유성이 변질된 이종, 혼성, 혼합의 복합적인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체 형태를 해체하는 방식은 현대 패션에서 이미 익숙한 개념이지만, 포스트휴먼의 표현된 양상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초월적으로 강화된 신체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는 포스트휴먼이 인간의 기술력을 투영하여 우월한 인간상으로 재현됨으로써 인류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즉, 신체 향상에 따라 증진 욕구를 충족하고 의도적인 개입에 의해 인간의 몸이 우월한 형질로 조작됨에 따라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이 편집성으로 도출된다.

셋째, 포스트휴먼의 외형적 인간상은 샤넬 패션쇼에서 최첨단 장치로 기계화된 인간 형태로 구현되고, 구찌 패션쇼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혼합양식이 융합되어 변종된 인간으로 표현되며,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에서는 창조적으로 생성된 유기체의 신종 인간으로 나타난다. 포스트휴먼의 외적 형상의 표출은 예측 불가능한 낯선 모습으로 진화되고 신인류로 탄생되는 다각적인 창조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은 인간의 이상적인 신체미를 거부함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변질된 낯설고 괴이한 인간형의 이미지로 표출된다. 원초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의 속성은 시대적 혹은 문화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탐구되는 새로운 관념의 대상으로 인공적으로 간섭받는 미래 인류를 상기시키며 포스트휴먼 미학을 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적 형상에 대하여 창조적 혁신의 가치를 추구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한 가지로 정의될 수 없는 색다른 인간상으로 전향되며 나아가 인간 창조로 승화됨에 따라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이 전환성으로 도출된다.

연구 결과,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은 기술 체계에 의한 모호성, 신체 향상에 따른 편집성, 외적 형상에 대한 전환성으로 도출되었다(Table 2). 인공지능과 융합 기술이 혁신을 주도하는 현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대 패션이 포스트휴먼의 인공적이고 난해한 정체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새롭기 때문이며, 과거의 패션 규칙을 탈피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은 본성에서 이탈되는 정체성을 지향하고 무한한 상상을 일으키며 초현실적 변종을 통해 현대 패션의 실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 개념에 근거하여 현대 패션쇼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내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사의 흐름이 변모하는 가운데 포스트휴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대 패션쇼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탐색하여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컬렉션의 종합적 연출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무대와 스토리, 모델의 분장이나 퍼포먼스 등의 구성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패션쇼의 전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각인시킨다. 패션쇼의 구성 요소를 무대, 효과, 공간, 퍼포먼스, 의복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컬렉션의 주제와 의도를 파악하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포스트휴먼의 내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패션쇼의 구성 요소에 따른 포스트 휴먼의 표현 양상을 기술 체계, 신체 향상, 외적 형상으로 나누고 분석하여 내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은 첫째, 인공적 방식을 수용하여 종의 경계를 탈피하는 모호성, 둘째, 증진 욕구의 충족을 위해 우성 형질로 조작되는 편집성, 셋째, 창조 혁신의 가치를 추구하여 인간상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키는 전환성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미래의 인간상이 정통적인 인간 본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만큼, 기술로 진화되고 있는 인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비범하고 초월적인 양상을 통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현대 패션의 포스트휴먼은 신체가 진화되는 발전적 의미의 진보적 추구 성향과 동시에 하이브리드 신체에 대한 기술적 지배의 위협과 두려움을 내포한다.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이러한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양면성의 시각은 인류애적 감성과 창의적 표현성을 극대화하여 분리되거나 공유될 수 없었던 모든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융합되는 탈인류적 정체성을 지

향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의 미래 인간상의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고, 현대 패션쇼가 총체 예술로서 포스트휴먼의 개념을 조형적으로 해석하는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패션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포스트휴먼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보다 혁신적인 패션 디자인 표현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aek, H. Y. (2018). *Design features of modern fashion influenced by transhuma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Balenciaga. (n.d.). *La Mode en Images*.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lamodeenimages.com/fr/node/516#balenciaga>
- Bauknecht, S. (2017, January 17). The top 15 runway trends for S/S 2017. *Sandras Closet*.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sandrascloset.com/category/summer-2017/page/2/>
- Bianca London for Mailonline. (2016, October 4). It's the Chanel bots, Models storm the runway dressed as Star Wars inspired storm troopers as Karl Lagerfeld turns his Paris catwalk into a giant data centre. *Daily Mail*.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dailymail.co.uk/femail/article-3821157/Chanel-models-storm-runway-dressed-cyborgs.html>
- Bionic Hand. (n.d.). *Ottobock*.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ottobockus.com/prosthetics/upper-limb-prosthetics/solution-overview/bebionic-hand/>
- Biopiracy. (n.d.). *Iris Van Herpen*.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irisvanherpen.com/haute-couture/biopiracy>
- Brady, S. (2016, October 5). Paris fashion geek: Chanel channels social media and tech neuroses. *Adelahay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adelahaye.com/blog/2016/10/24/paris-fashion-geek-chanel-channels-social-media-and-tech-neuroses>
- Braidotti, R. (2015). *The Posthuman* (Lee G. R., Trans). Seoul: Acanet. (Original work published 2013)
- Cellan-Jones, R. (2014, December 2). Stephen Hawking warns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end mankind. *BBC*.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bbc.com/news/technology-30290540>
- Chanel Spring 2017 Ready-To-Wear. (n.d.). *Vogu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

- ws/spring-2017-ready-to-wear/chanel
- Chang, A. H. (2002).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r culture contemporary fashion show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Chang, M. H. (2012). *A study on the expressing type of modern fashion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ans University, Seoul.
- Cho, S. Y. (2006). *Research on 'cyborg performance' viewed in the aspect of 'Posthum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Gyeonggi.
- Choi, J. H. (2011). An analysis of Posthuman's body type and fashion in SF movie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3), 473-487. doi:10.29049/rjcc.2011.19.3.473
- Cipolla, C. M. (2013). *Le Macchine del Tempo* (Choi, F. I., Trans). Seoul: Mizi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7)
- Cyborgs and Chanel's new world order in Paris. (2016, October 19). *Design Art Magazin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designartmagazine.com/2016/10/cyborgs-and-chanel-new-world-order-in.html>
- Doig, S. (2018, November 30). Dior touches down in Tokyo for the first ever Men's cruise collection, complete with towering cyborg and kimono suiting. *The Telegraph*.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telegraph.co.uk/luxury/mens-style/dior-menswear-cruise-pre-fall-2019-tokyo-kim-jones/>
- Donovan, L. (2018, February 21). Next season's must have accessory, a severed head, says Gucci. *Ell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elle.com/uk/fashion/news/a41830/gucci-milan-aw-2018/>
- Fall 2014 Ready-To-Wear Iris Van Herpen. (n.d.). *Vogu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iris-van-herpen/slideshow/collection#1>
-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 *Vogu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gucci/slideshow/collection#1>
- Fall 2019 Menswear Thom Browne. (n.d.). *Vogu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menswear/thom-browne/slideshow/collection#2>
- Fall 2019 Ready-To-Wear Marine Serre. (n.d.). *Vogu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6>
- Fall 2019 Ready-To-Wear Rick Owens. (n.d.). *Vogu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rick-owens/slideshow/collection#1>
- Farnell, R. (1999). In dialogue with Posthuman' bodies: Interview with Stelarc. *Body & Society*, 5(2-3), 129-147. doi:10.1177/1357034X99005002008
- Fisher, L. A. (2018, February 21). Things got weird at Gucci's Fall 2018 show. *Bazaar*.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harpersbazaar.com/fashion/fashion-week/a18564887/gucci-fall-2018-show/>
- Furniss, J. (2015, March 5). Fall 2014 Ready-To-Wear Iris van Herpen. *Vogu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iris-van-herpen>
- FW 2019 Womenswear. (n.d.). *Prada*.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prada.com/ww/en/pradasphere/fashion-shows/2019-fw-womenswear.html>
- Howarth, D. (2014, March 12). Vacuum packed models at Iris Van Herpen's Paris fashion week show. *Dezzen*.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dezzen.com/2014/03/07/vacuum-packed-models-installed-at-iris-van-herpens-paris-fashion-week-show/>
- Kim, J. H. (2005). *A study on criminal regulations of human clo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 Kim, S. J. (2017). *A study of human-machine characters as Posthum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 J. (2018). A study on site-specificity expressed in modern fashion show. *Journal of Fashion Design*, 18(1), 89-105. doi:10.18652/2018.18.1.6
- Knapp, A. (2019, July 17). Elon Musk sees his Neuralink merging your brain with A.I. *Forbes*.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forbes.com/sites/alexknapp/2019/07/17/elon-musk-sees-his-neuralink-merging-your-brain-with-ai/#450a594e4b07>
- Knoepfler, P. (2016). *GMO Sapiens: The life-changing science of designer babies* (Kim, B. E., Trans). Seoul: Banni. (Original work published 2015)
- Korea Post-Human Research Institute & The Korea Association for Posthuman Society. (2016).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The Human in Posthuman Era]. Gyeonggi: Acanet.
- Lee, J. W., Lee, Y. T., Kwon, U. S., & Park, M. A. (2004). *인간복제에 관한 철학적 성찰* [Philosophical reflection on human cloning] Seoul: Moonye.
- Lewis, T. (2011, July 3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uardian*.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theguardian.com/sport/2011/jul/31/oscar-pistorius-should-he-compete>
- Lim, J. H. (2013).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body-space' according to the mechanic character of hum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Gyeonggi.
- Menkes, S. (2019, February 22). SuzyMFW: Prada: Frankenstein mark two. *Vogu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vogue.co.uk/article/suzymfw-prada-frankenstein-mark-two>
- Moon, Y. J. (2006). *A study on the cyborg body images in the Posthuman era: Focusing on Orlan and Stelarc*.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Mower, S. (2018, February 21). Fall 2018 Ready-To-Wear

- Gucci. *Vogu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gucci>
- Myung, Y. H. (1999). *A study on the fashion show: mainly in stage set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 Nam, K. H. (2016). *Post-humanist aesthetic the directivity of Beauty Desig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Chungju.
- Park, Y. S., & Cordeiro, J. (2006). 2020 트랜스휴먼과 미래경제 [2020 Transhuman and future economy]. Seoul: Kyobobook.
- Saillant, O. (2019, October 4). Data center Chanel the show decor. *Chanel*.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chanel.com/us/fashion/news/2016/10/data-center-chanel-the-show-decor.html>
- Silbert, J. (2019, February 12). Balenciaga's summer 2019 campaign is an absurd 'Matrix' homage. *Hypebeast*.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hypebeast.com/2019/2/balenciaga-summer-2019-collection-campaign-video>
- Spring 2019 Ready-to-Wear GCDS. (n.d.). *Vogu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gcds/slideshow/collection#31>
- Valenti, L. (2018, February 21). The crystal headpieces that stole the show on the Gucci runway. *Vogu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vogue.com/article/gucci-fall-2018-milan-fashion-week-jewelry-headpieces-crystal-hair-unibrow-orange-hair>
- Woods, T. (2019, February 1). 'Age-tech': The next frontier market for technology disruption. *Forbes*.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forbes.com/sites/tinawoods/2019/02/01/age-tech-the-next-frontier-market-for-technology-disruption/#7741c5de6c84>
- World Economic Forum. (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Klaus Schwab. *World Economic Forum*.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weforum.org/about/the-fourth-industrial-revolution-by-klaus-schwab>
- Xander Zhou Spring/Summer 2019 Menswear Collection. (n.d.). *Vogue*. Retrieved April 28, 2020, from <https://www.vogue.co.uk/shows/spring-summer-2019-menswear/xander-zhou/collection>
- Yun, S. R., & Lee, J. J. (2001). A case study on fashion show stage setting. *Journal of Fashion Design*, 1(1), 53-76.

A Study on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Posthuman in Contemporary Fashion Show

Han, Nalee • Park, Juhee⁺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Posthuman in a contemporary fashion show.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Posthuman in the fashion industry at this point when the evolution of humanity is realized through technology.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Posthuman experimental and multifaceted direction and performance of the contemporary fashion show.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ies, reviewing prior papers and periodicals related to Posthuman, Internet materials, and collecting and processing related photos and articles from magazines, fashion information sites, and brand homepages.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Chanel 2017 S/S, Gucci 2018 F/W, Iris Van Herpen 2014 F/W collections that revealed the concept of Posthuman among fashion shows from 2014 to 2019. The three selected collections are the fashion show which was evaluated as a comprehensive art with strong expressions of props, models, and stage productions, including garments of brands, and the research analyzes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Posthuman, focusing on creative expressions of the future human figure. This study drew internal characteristics of Posthum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mporary fashion show. Through thi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Posthuman in contemporary fashion include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percussions and would aim at disidentification that is Convergence and transition Identity crossing time and spac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integrated as a new visual presentation of Posthuman in various fields of creation, including fashion design.

Key words : fashion show, Posthuman, technology, humanity

